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음 4월 21일) 제18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지사와 전화통화 전북현안 공감대 형성

“도민께 감사... 전북 몫 챙길 것”

송 지사 “새만금 전담부서
조성 의지 강하게 내비쳐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군산조선소 준지도 약속”

2015년 명예도민증 수여 등
문 대통령과 인연 강조
“전북 발전 디딤돌 될 것”
입각제에 “도정에 매진”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지난 대선에서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
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사부터 ‘전북
몫’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지사는 1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문
재인 대통령께서 14일 오전 10시 50분
쯤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
오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여분 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송 지사에게 “선거과정에서
전북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민
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송 지사는 “문 대통령께서 ‘인
사’를 포함해 전북과 관련된 모든 사안
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이후에
도 자주 소통하기로 했다”고 소개했
다.

또한 송 지사는 전북의 가장 현안
사업인 세계잼버리 유치에 관련해서
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중앙 각
부처의 지원, 대통령의 친서를 각국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세계잼버
리가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연히
챙기겠다”며 “현재 정부의 외교채널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전북도에서 준
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 놓아달
라”고 주문했다고 송 지사는 설명했
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북에 애정을



15일 송하진 도지사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정부 출범과 관련, 전북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가지고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지켜
봐주시면 도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송 지사
는 밝혔다.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
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며 민간주도의
매립에서 공공주도의 매립을 공약을
세워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새만금 전
담부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송 지사는 설명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존
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했을때 군산조선소 존치
를 약속했다며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
고 있고 문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
라고 송 지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
다.

특히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
연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당 대

표 시절부터 전북과의 끈끈한 인연
을 맺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2015년 3월 전북도를 방문해 ‘명예
도민증’을 전달했던 일화를 소개하
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더
불어민주당이 야당이어서 큰 힘이 안
되지만 여당이 되면 전북에 큰 힘이
돼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송지사는
언급했다.

또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도 국내에서는 대회를 유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당
시 문 대표가 직접 송 지사에게 전화
를 해서 유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유
치 과정의 물꼬를 텄다는 비화도 전했
다.

송 지사는 이날 새 정부에 참여할
전북출신 인사들의 발탁에도 드러나
지 않게 여러 경로로 추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송 지사는 “새 정부와는 많은 연결
고리가 있고 예전보다 많은 소통의 창
구가 있어서 ‘전북 몫 찾기’가 매우
수월해졌다”며 “전북출신 인사들이 중
앙부처에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다
가고 있다”며 “새로운 여건이 조성
되면 전북에 유리한 모습이 될 것”이
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도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교감을 나누며 각 행정부처,
국가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가 전
북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민
주당은 물론 각 정당과도 협력적인 관
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자신에게 입각제의
가 올 경우 당장은 참여하지 않고 전
북도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은 분명
히 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한지, 온누리에 펼쳐다’

한지문화축제 19일 개막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
약하기 위해 전주한지를 활용한 한
바탕 잔치마당을 펼친다.

〈관련기사4면〉
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
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
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
한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가 대한
민국 한지의 본류이자 중심지로서
한지의 세계화와 한지를 비롯한 전
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이다.

‘전주한지, 온누리에 펼쳐다’를 주
제로 한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이
벤트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와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
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개막 축
하 공연과 전주한지패션대전, 한지
코스튬플레이패션쇼, 한지산업관,
한지공예체험, 전국한지공예대전 수
상작 전시, 한지박 한지공 놀기대회,

한지시승줄다리기, 달빛소원쓰기와
한지염서·편지쓰기, 천년한지 사진
관 등 30여가지다.

특히, 시와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한지의 다양한 쓰임새를 널리
홍보해 한지의 대중화를 추구한 이
후, 산업화와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남호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
원장(전북대학교 총장)은 “한지축제가
어느덧 21살의 청년기로 접어든
만큼 생기 있고 발랄한 행사를 통해
전주시민과 관광객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
다”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훌
륭한 전주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색다른 경험들이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는 올해 전주한지
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
한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
를 선사할 것이다. 한지문화축제와
FIFA U-20월드컵,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로 전주의 5월은 뜨거울 것”이
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폭염 등... 10월 15일까지

전북도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
전망을 보면 5~7월 평균기온은 평
년(5월-17.2℃, 6월-21.2℃, 7월-24.5
℃)보다 높겠으며, 8월경부터는 발
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겠다고 전
망했다.

도에서는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
난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여름
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T/F팀’
을 구성·운영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13개 협업분야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자 교육’을 실
시했고, 13일과 14일에는 ‘도, 유관
기관, 민간단체, 자율방재단연합회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를, 27일에는 집중호우대비 도·시
군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14개 시군 재
난관계관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
비 영상회의(도민안전실장 주재)’를
개최해 시군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최종 점검했
다.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
난상황 대응계획 목표를 ‘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인명 및
재산보호’로 하고 7대 추진전략과
35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
는 6월부터 TV·라디오 및 반상
회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 도민행
동요령 등 주민밀착형 예방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인명피해 우
려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실
시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 나섰다

5면 - 청탁금지법 이후 첫 승승의날

7면 - 익산 서동축제 성료

13면 - 김시우,PGA 플레이어스 우승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